

#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'빛장을 여는 사람들' 활동 보고서

(1994년 12월 - 1996년 5월 현재)

## 1. 사업 목적

-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이중의 고통을 살아가고 있으나 여성계에서도 장애계에서도 논의의 영역에 놓여있음으로써 실태나 현황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을수도 없다.
- 따라서 연구소는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이중고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혹은 대사회적인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분과를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.

## 2. 경과 보고

### 가. 1994년 12월 15일 처음 준비회의

- 정립회관 강당에서 김미연, 권호예, 배복주, 송지분, 박옥순 등 5명이 준비회의를 가졌다.

### 나. 회원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연구소 소모임에서 여성장애인분과로 승격(95년 4월)

- 장애인 5명/비장애인 6명으로 회원이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장애인분과로 승격

### 다.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

- 1995년 4월 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에서 공청회 개최
-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장애인문제를 제기했다는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평가

### 라.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실시

- 공청회에 앞서 여성장애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, 고용, 결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청회에서 발표

#### 마. 빗장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

- 1995년 9월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빗장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방배동 랑데뷰호프에서 개최
- 총 130만원 수입  
북경여성대회 참가자에게 활동비 120만원 중 80% 지원

#### 바.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

-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김미연씨 참가
- 세계여성기구로부터 70만원 지원받음

#### 사.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 후 보고대회

- 1995년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
- 수집된 자료 번역 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자와 함께 자료집을 마련하여 발간

#### 아. 연구모임

-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주간모임 진행
- 96년 6월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7:30-9:30까지 주간모임 진행중
- 공청회 진행
- 일일호프 진행
-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대회 진행
- 현재 HIDDEN SISTERS(숨겨진 여인들)이라는 단행본 발간 준비중
- 김미연, 윤미경, 안은자, 김광이, 김진옥, 이숙경, 이상 6명의 여성장애인과 지민희, 이은하, 박옥순, 등 비장애여성 3명, 그리고 전병진, 이상엽 등 남성 회원 2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

#### 바. 정기모임

##### ○ 정기모임의 필요성

- 매주 수요일 저녁시간에 갖는 연구모임은 성격상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밤시간이고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해 낮시간을 이용한 주간 정기모임을 마련했다

##### ○ 정기모임 활동

**- 제 1차 정기모임**

일 시 : 10월 10일 오후 2시 - 5시까지(연구소 강당)

참석자 : 총 9명

활 동 : '가비의 기적'이라는 여성장애인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얘기들을 풀어냈다

**- 제 2차 정기모임**

일 시 : 11월 7일 오후 12시 - 4시까지(연구소 강당)

참석자 : 총 11명

활 동 : '뮤리엘의 웨딩'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'결혼'이라는 주제로 토론

**- 96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4차례 모임을 가짐**

1월 : 시무식 및 96년 사업 결정

2월 : '만나고 싶은 사람들'중 윤석인 수녀님을 초청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눔

3월 : 이승환님을 모시고 '글쓰기의 이론과 실제'라는 주제로 문학강좌 개최

4월 : 용산가족공원으로의 소풍계획을 세웠으나 우천관계로 연구소에서 모임을 가짐

○ 매달 둘째주 수요일 오후 12시 - 4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모임을 갖고 있음